

여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못잡아... 또 '맹탕' 되나

세월호 정국 대치 장기화 국회파행·부실국감 우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정기국회 파행과 부실 국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 실시 등 현안과 민생 법안 등을 세월호 특별법과 별도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공을 넣기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거론되면서 내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카운터파트인 새누리당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선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내야 하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실이다.

이로 인해 여야는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해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던 국정감사 분리 실시도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분리 국감은 기존 국감이 '몰아치기'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두 차례로 나눠 국감을 진행, 민생·정

책 감사를 통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지는 취지로 야당이 먼저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공감해 합의가 이뤄졌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하지만 예년과 같은 '원 샷 국감'이 되면 그만큼 예산 심의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지면서 부실 국감에 부실 예산안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일단

세월호 특별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만만치 않아 월요일(2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현성 원내대변인은 "분리 국감은 야당이 먼저 하자고 주장해 합의된 것"이라며 "당장 25일에 원 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분리국감법을 처리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25일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이달 말까지인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활동을 마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도 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을 비판하며 장외투쟁에 들어가면서 정기국회가 3주 정도 경과한 9월23일에야 뒤늦게 정상화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월호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 단식 참가자들의 기원이 담긴 글과 그림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아이스버킷' 동참 박지원 의원 "유가족·여야 만족하는 세월호법 통과시켜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3일 루게릭 병 환우를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목포시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에서 머리 위로 얼음물을 쏟아부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유가족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유가족이 반대하는 합의안은 과거하고 여야와 유가족이 다시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로부터 지목된 박 의원은 다음 주자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를 차례로 지목했다.

박 의원은 박 대표를 지목하며 "새로운 협상을 활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는 "재협상에 나서는데 얼음물을 마셔가며 정신을 차려달라"고 했고, 안 전 대표에게는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다시 정신을 차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 돼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100달러를 루게릭 환자에게 기부하는 일이 유민 아빠의 건강 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기금 마련과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與 박상은·조현룡 구속 野 김재운 의원도 신계륜·신학용 영장 기각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여야 정치인 3명이 지난 21일 한꺼번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은 이날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운·신학용 의원 등 5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새누리당 두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재운 의원 등 3명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영장 집행에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 신속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한역 의원들이 한달 대거 구속된 것은 지난 2004년 초 당시 열린우리당 정대철·한나라당 박명환 의원 등 6명이 불법 대선 자금 또는 금품비리 연루 혐의를 받아 무더기로 구속된 이래 10년 만이다.

/연합뉴스

위기의 박영선 리더십

"세월호법 협상 등 어려운 상황 역량 극대화에 한계" 野 중진의원들 "원내대표·비대위원장직 분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당 대표격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겸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은 지난 22일부터 선수별 모임을 갖고 특별법 정국의 해법과 더불어 박 원내대표의 역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4선 이상을 주축으로 한 중진급 의원 8명은 이날 오전 모임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의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특별법 협상도 '투톱'이었다면 서로 상의도 하고, 더 효율적 결과를 냈을 것"이라면서 "박 원내대표가 이번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을 분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조선 의원 10여명도 이날 모임에서 향후 비대위

구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박 원내대표의 거취 이야기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원내대표직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 비대위원장은 내려놓은 뒤 (여당과)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25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공식 거론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 측의 한 인사는 24일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민주정당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만큼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박 원내대표의 모든 고민은 세월호법 해결과 당의 현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공직후보자 사전 검증강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 황주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업무능력·정책전문성·정책계획 등을 기술한 '자기기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재산신고 내역 중 '사인 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의원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난 2000년 도입된 후 15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부실 검증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연의 역할에 맞게 자질과 자격을 갖춘 후보자만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동문대로[두암동]랜드마크 주선메디컬센터 임대
말바우시장 핵심상권

- 위치 : 두암동 말바우 시장 은병원 옆
-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 준공 : 2014년 12월 초

상담
진 공인중개사 010-6205-6020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Up&Down
↓금리는 낮게

집 담보도
상가 담보도
전세보증금 담보도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저자 직강 } **응심리학과 정서**

일시 2014년 8월 29일(금) 오후 06시부터 09시까지
2014년 8월 30일(토) 오전 10시부터 05시까지

장소 광신대학교

교육비 • 12만원(책값 22,000원 별도)
• 10명이상 단체 등록시(22인까지) 교육비 9만5천원
• 22인까지 개인 선등록시 만원 할인

강사 박종수 교수
• 강남대 심리학 교수
• 스위스 취리히 융 연구소 수석
• 한국정신분석상담학회 회장
• 목회상담학회 감독
• 한국독서치료학회 이사 및 독서치료 전문가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정서중심심리상담사 2급
(1단계에 해당, 2단계 후 2급 자격 취득 가능)

등록번호 2012-0547

혜택 • 정서코칭 1급, 전문가 지원시 임상실습 5시간 인정
• 목회상담협회 교육시간 10시간 인정
• 한국정신분석상담교육협회 교육시간 10시간 인정

접수 및 문의 농협 355-0012-1260-13
kcfce@hanmail.net

※ 책을 단채로 주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21일까지 문의해 주십시오.
단체 주문한 책은 25일 월세시나미라 미리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대표이사 조인숙
☎062-652-0675, 010-8299-6237
평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9-16번지 5층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7)	광주교육대학교(107)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4. 9. 5.(금) 09:10 (10교반) · 금요일 오후반: 2014. 9. 5.(금) 14:10 (10교반) · 토요일 오전반: 2014. 9. 6.(토) 09:10 (10교반) ·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10교반)	· 월요일 오후반: 2014. 9. 1.(월) 14:10 (10교반) · 월. 목 야간반: 2014. 9. 1.(월) 19:00 (10교반) · 목요일 오전반: 2014. 9. 4.(목) 09:10 (10교반) ·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10교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명명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대학교과목과 후 교육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서법) 취득 기회 부여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명명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대학교과목과 후 교육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서법) 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